

대학생의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태도

이 정 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기본인명구조술은 전문인명구조술이 시행될 때까지 혈액순환을 유지함으로써 임상적 사망이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임상적 사망이란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부터 호흡, 순환, 뇌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하지만, 혈액순환이 회복되면 심정지 이전의 중추신경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이며, 생물학적 사망은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아 영구적으로 소생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1,4)}

병원전 심정지의 목적은 일반인이나 응급의료진에 의해 심정지 순간이 포착되는 경우를 말하며, 목적의 중요성은 응급의료체계에 단순한 신고뿐만 아니라 목격자에 의해 기본심폐소생술이 시작되어 소생의 첫단계가 신속히 이루어져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심정지가 목격되는 순간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목격된 환자의 경우 생존율이 26%까지 나타나 목격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4%)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

생술이 시행되었던 환자에서 초기 심전도 소견 중 심실세동이 더 많이 발견되었고 생존율도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²⁾. 김 등³⁾의 연구에서 목격된 심정지 환자가 대상 환자의 71명중 55명(77.5%)인데 이중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하였다. 이 등⁴⁾의 연구에서 목격된 비외상성 심정지가 생존하여 퇴원하는 확률은 26.7%대 0%, 자발순환이 회복되는 확률은 66.7%대 20%로 이들 간에 생존 퇴원을 및 자발순환 회복률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의 유무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게 나타났다. 이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서 응급의료센터까지 내원시간이 목격자가 없는 경우보다 짧았으며, 국내의 다른 연구에서도 일반인에 의해 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전무하다^{15,16)}.

이 등⁴⁾의 연구에 의하면 119구급대를 이용해 내원한 경우 사망률이 53.3%로 상대적으로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심정지가 발생된 후 119체계가 활성화되어 119구급대가 심정지 발생장소로 도착할 때까지 목격자에 의한 기본 심폐소생술이 전혀 시행되지 않으며,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내원하는 중에도 응급구조사에 의한 기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는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

* 동남보건대학 응급구조과

- 본 연구는 2004년도 동남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정되는 다른 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정지 시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들은 응급 의료체계의 활성화 및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의 방안으로 향후 꾸준히 개선해야 될 것이다.

Fisher 등⁵⁾은 464명의 병원전 심정지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심정지가 목격된 경우에는 39.6%, 심정지가 목격되지 않은 경우에는 7.3%만이 소생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병원전 심정지의 목격여부가 환자의 소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²⁰⁾.

즉, 심폐정지자의 순환회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목격자 유무이며 현장에서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했는가 또한 중요한 요인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한 기본인명구조술이 실시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Brennan 등⁶⁾의 연구에 의하면 심폐소생술을 교육받기 위해 모인 244명의 참여자 중, 심장발작률의 높은 위험군을 가족으로 가진 대상자는 단지 18.5%로 소수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사람들(78.5%)이 단순히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적십자에서는 매년 1200만명 정도의 일반인들이 응급처치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매년 550만명 정도가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다⁷⁾.

Clark 등⁸⁾은 호주에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와 심폐소생술을 교육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대상자의 88.3%가 응급시에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노력으로 갈수록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상자의 59%가 이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고 단지 12.1%가 최근에 교육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이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많은 기관에서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실태가 정확히 보고된 연구는 드물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는데

지각되는 문제점과 기본인명구조술 실시에 따른 지각되는 효과에 관한 연구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실태 및 태도와 기본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지각되는 문제점과 지각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본인명구조술에 관한 실태와 태도를 측정하고 기본인명구조술 실시에 따른 지각되는 문제점과 효과를 측정하여 차후 기본인명구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교육의 보급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본인명구조술 실태와 태도 그리고 지각되는 문제점과 효과를 알아보고 대학생 대상의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을 계획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4)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할 때와 관련된 지각되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 5)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할 때 지각되는 효과를 파악한다.
- 6) 제세동술의 실태와 태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실태 및 태도와 기본인명구조술 실시에 따른 지각되는 문제점과 지각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와 C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과와 응급구조과의 신입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2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Compton 등¹²⁾ 이 교사를 대상으로 제세동과 심폐소생술의 지각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문헌고찰^{9,17,18,19)}을 통하여 수정보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구성은 일반적인 특성 3문항, 기본인명구조술 실태 3문항, 기본인명구조술 태도 4문항,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시 지각되는 문제점 5문항,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시 지각되는 효과 1문항, 제세동술 실태와 태도 5문항 등의 총 2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05년 3월 1일부터 4월 1일 까지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작성법 요령에 대해 숙지시킨 다음, 설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23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한 후 SPSS Win 10.1 Version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t-test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빈도와 백분율은 <표 1>과 같다. 과별 분포를 보면 간호과가 73.1%, 응급구조과가 26.9%의 비율을 보였

다. 성별상태를 살펴보면 여자가 83.8%, 남자가 16.2%였다. 근무경력이 없는 군이 84.6%, 있는 군이 15.4%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N=234)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과	응급구조과	63	26.9
	간호과	171	73.1
성별	남	38	16.2
	여	196	83.8
근무경력	유	36	15.4
	무	198	84.6

2.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실태

대상자의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실태는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전에 심폐소생술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4.3%),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해 들어본 정보원 혹은 매체는 TV가 53.9%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이 31.0%, 교과서 8.3%의 순이었다. 기본인명구조술 교육 경험은 대부분의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8.1%). 심장질환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⁹⁾ 전체 대상자의 80.4%가 교육을 받기를 원하였고, 95.1%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교육을 받기를 권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권¹⁰⁾이 보건계열 학생과 비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4.4%가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¹¹⁾의 연구에서 현장응급처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인명구조술의 교육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93.8%가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5.3%가 교육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권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94.5%가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대조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인명구조술 교육 보급률이 아직도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2. 대상자의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실태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심폐소생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	194	84.3
	아니오	36	15.7
계		230	100
심폐소생술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신문, 잡지	4	2.1
	TV	103	53.9
	교과서	16	8.3
	인터넷	3	1.6
	교육기관	62	31.0
	기타	6	3.1
계		194	100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예	26	11.9
	아니오	193	88.1
계		219	

3.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태도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태도는 <표 3>과 같다. 기본인명구조술과 전공과의 연계성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기본인명구조술이 전공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97.1%), 차후 실시되는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에 대부분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95.7%). 학교에 기본인명구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기본인명구조술 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6.8%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시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겠느냐는 질문에 56.8%가 실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기본인명구조술 방법을 알고 있다면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겠느냐는 질문에 실시하겠다는 응답이 83.3%로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박⁹⁾의 연구에서 타인의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78.4%가 실시하겠다고 대답하였고 21.6%가 실시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다소 낮게 나온 것은 박⁹⁾의 연구에서는 심장질환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인명구조술이 절실했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대상자 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표 3. 대상자의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태도

(N = 234)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심폐소생술 교육이 전공에 필요한가?	예	227	97.1
	아니오	7	2.9
심폐소생술 교육 제공 시 참여하겠는가?	예	224	95.7
	아니오	10	4.3
심폐소생술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예	216	92.3
	아니오	18	7.7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겠는가?	예	133	56.8
	아니오	101	43.2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겠는가?	예	195	83.3
	아니오	39	16.7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47.5%가 필요시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이전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가 70.8%,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22.6%로 나타났다¹²⁾. 본 연구 결과는 Campton 등¹²⁾의 연구보다 필요시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겠다는 비율이 높아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교육을 받았을 경우 더욱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본인명구조술 방법을 알고 있다면 필요시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율이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4. 기본인명구조술 실시할 때 지각되는 문제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할 때 지각되는 문제는 <표 4-1>과 같다.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대상자 101명 중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57.4%), '옳게 할 자신이 없어서'(23.8%), '더욱 더 손상을 입힐까봐'(12.8%), '법적인 문제'와 '기타'(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교육이 활성화 될 경우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기본인명구조술을 직접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기본인명구조술의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상자 39명중 그 이유는 '자신감 결여'(56.4%)가 가장 많았으며, '추가손상 우려'(25.6%), '법적인 문제'(10.3%), '기타'(5.1%), '전염성 질환의 가능성'(2.6%) 순으로 나타났다.

강¹⁾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데 자신이 없어서'가 17.6%로 가장 많았고 '임상적 판단 부족'이 3.9%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또한 재교육과 실기강화 교육으로 자신감을 증가시켜 주면 일반인에 의해 수행되는 기본인명구조술 실시율이 증가하리라 본다.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옳은 방법'(47.5%), '추가손상 우려'(36.3%), '법적인 문제'(12.0%), '전염성 가능성'과 '기타'(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기본인명구조

술 교육 보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며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시 문제 항목별 지각되는 정도를 보면 <표 4-2>와 같다. 법적인 문제는 '가끔 문제가 된다'(47.0%)로 가장 많았으며,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은 '가끔 문제가 된다'(37.6%), 기본인명구조술의 옳은 방법은 '매우 문제가 된다'(57.7%), 심정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추가손상은 '가끔 문제가 된다'(44.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시 지각되는 문제의 과별 차이는 <표 4-3>과 같다.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만 과별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응급구조과 신입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53, p=.005$).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시 지각되는 문제의 성별 차이는 <표 4-4>와 같다.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표 4-1. 기본인명구조술 실시에 따른 지각되는 문제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	3	3.0
	전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 때문	0	0
	옳게 할 자신이 없어서	24	23.8
	더욱 더 손상을 입힐까봐	13	12.8
	방법을 모르기 때문	58	57.4
	기타	3	3.0
	계	101	100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	4	10.3
	전염성 질환의 가능성	1	2.6
	자신감 결여	22	56.4
	추가손상 우려	10	25.6
	기타	2	5.1
	계	39	100
심폐소생술 실시시 지각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	28	12.0
	전염성 가능성	5	2.1
	옳은 방법	111	47.5
	추가손상 우려	85	36.3
	기타	5	2.1
	계	234	100

표 4-2.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시 문제 항목별 지각되는 정도 N=234(%)

	매우 문제가 된다	가끔 문제가 된다	가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응답
법적인 문제	38(16.2)	110(47.0)	41(17.5)	23(9.8)	22(9.4)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	16(6.8)	88(37.6)	56(23.9)	52(22.2)	22(9.4)
심폐소생술의 옳은 방법	135(57.7)	62(26.5)	13(5.6)	11(4.7)	13(5.5)
심정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추가손상	98(41.9)	105(44.9)	10(4.3)	7(3.0)	14(6.0)

표 4-3.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시 지각되는 문제의 과별 차이 N=234

		빈도	평균±표준편차	t 값	p값
법적인 문제	응급구조과	56	2.13±.89	-1.065	.288
	간호과	156	2.27±.86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	응급구조과	55	2.98±.95	2.853	.005
	간호과	157	2.57±.90		
심폐소생술의 옳은 방법	응급구조과	57	1.70±.90	1.662	.098
	간호과	164	1.49±.77		
심정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추가 손상	응급구조과	57	1.80±.87	1.774	.130
	간호과	163	1.61±.64		

표 4-4.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시 지각되는 문제의 성별 차이

		빈도	평균±표준편차	t 값	p값
s법적인 문제	남	35	2.31±.86	-.618	.537
	여	177	2.21.87		
	계	212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	남	35	3.14±.87	-3.305	.001
	여	177	2.58.91		
	계	212			
심폐소생술의 옳은 방법	남	36	1.66±.89	-.957	.340
	여	185	1.52±.80		
	계	221			
심정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추가 손상	남	35	2.05±.99	-3.664	.000
	여	185	1.58.62		
	계	220			

표 5-1. 대상자의 기본인명구조술 효과에 대한 지각 (N = 227)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경우 심정지인 사람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그렇다	66	29.1
	가끔 그렇다	144	63.4
	가끔 그렇지 않다	17	7.5
	매우 그렇지 않다	0	0

표 5-2. 기본인명구조술 효과에 대한 지각에 따른 차이 (N = 227)

		빈도	평균±표준편차	t값(p값)
성별	남자	36	3.33±.53	-1.360(.175)
	여자	191	3.19±.57	
과별	응급구조과	60	3.35±.61	2.052(.043)
	간호과	167	3.167±.55	

것으로 나타났다($t=-3.305, p=.001$). 심정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추가손상 또한 남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664, p=.000$).

5.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할 때 지각되는 효과

대상자의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할 때 지각되는 효과는 <표 5-1>과 같다.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없었으며, '가끔 그렇다'(63.4%)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29.1%), '가끔 그렇지 않다'(7.5%) 순으로 심폐소생술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9%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52.1%가 '가끔 그렇다'라고 대답하여본 연구 같은 긍정적인 지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기본인명구조술 효과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보면 <표 5-2>와 같다. 과별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응급구조과 학생이 간호과 학생 보다 더욱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2.052, p=.043$).

6. 제세동술에 대한 실태와 태도

제세동술에 대한 실태는 <표 6-1>과 같다. 제세동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65.%). 제세동에 대한 정보 제공원은 TV가 가장 많았으며(79%), 기타(10.5%), 교육기관(4.9%), 신문잡지(3.8%) 순이었다.

표 6-1. 대상자의 제세동술 대한 실태

특 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제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	153	65.4
	아니오	78	33.3
	계	231	100
제세동은 어디에서 들었는가?	신문잡지	4	3.8
	TV	83	79.0
	교과서	1	0.9
	인터넷	1	0.9
	교육기관	5	4.9
	기타	11	10.5
계	105	100	
제세동 교육이수 경험이 있는가?	유	0	0.0
	무	210	100.0
	계	210	100

대상자의 제세동술에 대한 태도는 <표 6-2>와 같다. 제세동술 교육에 대상자 대부분이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며(81.5%) 필요시 제세동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많은 수가(53.5%)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는 아직까지는 일반인 대상 제세동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2. 대상자의 제세동술에 대한 태도

		구분	실수	백분율(%)
제세동 교육 제공 시 참여하겠는가?	예		185	81.5
	아니오		42	18.5
		계	227	100
필요시 제세동을 실시하겠는가?	예		106	46.5
	아니오		122	53.5
		계	228	100

심정지 시 관찰되는 부정맥 중 심실세동이 가장 흔히 관찰되며, 심정지 후 신경학적 손상 없이 생존한 환자의 90% 이상이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실세동 환자의 생존은 심정지 초기에 시행된 제세동의 성공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무수축이나 무맥성 전기활동의 심전도가 관찰되는 환자의 생존율은 극히 낮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의 전제 생존율을 증가시키려면, 제세동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심실세동의 치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심실세동을 자동 분석하여 제세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면 응급구조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제세동 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제세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세동은 심정지를 접할 기회가 있는 모든 의료인에게 기본인명구조술과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¹³⁾.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의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실태와 태도를 파악하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기본인명구조술 실태와 태도 그리고 지각되는 문제점과 효과를 알아보고 대학생 대상의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을 계획하는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G와 C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응급구조과의 신입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2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본 연구자가 문헌을 고찰하여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2005년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작성법 요령에 대해 숙지시킨 후 작성하게 하였으며, 설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234부를 SPSS Win 10.1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간호과가 73.1%, 응급구조과가 26.9%였으며, 성별상태는 여자가 83.8%, 남자가 16.2%였다. 근무경력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84.6%).

2. 대상자의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실태는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전에 심폐소생술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4.3%), 기본인명구조술을 들어본 정보제공원은 TV가 53.9%로 가장 많았으며,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이수 경험은 대부분의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8.1%).

3. 기본인명구조술 태도에 관해서는 전공과의 연계성은 대상자의 대부분이 기본인명구조술이 전공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97.1%), 차후 실시되는 기본인명구조술 교육에 대부분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95.7%). 학교에 기본인명구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기본인명구조술 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6.8%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시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겠느냐는 질문에 56.8%가 실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기본인명구조

술 방법을 알고 있다면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겠느냐는 질문에 실시하겠다는 응답이 83.3%로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4.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57.4%), 만약 기본인명구조술의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감 결여'(56.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시 지각되는 문제의 과별 차이는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만 과별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응급구조과 신입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53, p=.005$).

기본인명구조술 실시 시 지각되는 문제의 성별 차이는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에서 남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t=-3.305, p=.001$), '심정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추가손상' 또한 남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 두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664, p=.000$).

5. 대상자의 기본인명구조술을 실시할 때 지각되는 효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없었으며, '가끔 그렇다'(63.4%)가 가장 많았고, '매우 그렇다'(29.1%), '가끔 그렇지 않다'(7.5%) 순으로 심폐소생술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인명구조술 효과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보면 과별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응급구조과 학생이 간호과 보다 더욱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2.052, p=.043$).

6. 제세동술에 대한 실태는 제세동술에 대해 들 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65.0%). 제세동에 대한 정보 제공원은 TV가 가장 많았다(79%). 제세동술 교육에 대상자 대부분이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며(81.5%) 필요시 제세동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많은 수가(53.5%)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대상의 기본인명구조술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효과를 배가

시켜야 할 것이며, 일회성 교육이 아닌 반복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추후 연구는 더욱 많은 대상자를 포함시킨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여러 과를 대상으로 하여 보건계열과 비보건 계열의 차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여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인명구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임경수, 김유호, 김원, 최옥경, 박영환. 심폐소생술. 서울: 군자출판사, ;2002. p.1-3.
2. Robert AS, Raymond EJ, Mara C et al. Bystander CPR, VF, and survival in Witnessed, Unmonitored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Ann Emer Med* 1995; 25: 780-784.
3. 김중근, 최마이클승필, 서강석, 설동환, 박정배, 정제명. 병원전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분석. *대한응급의학회지* 2002; 13(1).
4. 이명갑, 김성진, 최대해, 전덕호, 유병대, 이동필. 비외상성 병원전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결과. *대한응급의학회지* 2002; 13(4): 428-433.
5. Fische, M, Fisher NJ & Schuttler J. One year survival after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in Bonn city: Outcom report according to the Utstein style, *Resuscitation*, 1997; 33(3): 233-243.
6. Brennan RT, Braslow A. Are we training the right people yet? A survey of participants in publ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lasses. *Resuscitation* 1998; 37(1): 21-25.
7. Eisenburger P, Safar P. Life supporting

- first aid training of the public review and recommendations, *Resuscitation* 1999; 41(1): 3-18.
8. Clark MJ, Enraght-Moony E, Balanda KP, Lynch M, Tighe T & FitzGerald G. Knowledge of the national emergency telephone number and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ose trained in CPR in Queensland: Baseline information for targeted training interventions. *Resuscitation* 2002; 53(1): 63-69.
 9. 박소현. 심장질환자 배우자의 기본인명구조술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0. 권혜란.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심폐소생술에 대한인지도.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002; 4(4): 35-46.
 11. 강경희. 현장응급처치자를 위한 기본 인명구조술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12. Compton S, Swor RA, Dunne R, Welch RD, & Zalenski RJ. Urban Public School Teachers'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CPR an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 *Americ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2003; 34(4): 186-192.
 13. 황성오, 임경수. 심폐소생술과 전문심장구조술. 서울 군자출판사, 2005.
 14.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응급구조과 응급처치. 서울 군자출판사, 2005
 15. 유지영, 김무수, 정구영, 박규남, 이근. 병원전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성적: 경인·서부지역 3개 병원. *대한응급의학회지* 1999; 10(3): 370-8.
 16. 송근정, 이정훈, 성일순, 정연권, 최성욱. In-Hospital Utstein Style에 의한 3차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에서의 심폐소생술성적. *대한응급의학회지* 12: 27-35, 2001.
 17. Axelsson A, Herlitz J, Ekstrom L, & Holmberg S. Bystander-initiate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ut-of-hospital. A first description of the bystanders and their experiences. *Resuscitation*, 1996; 33, 3-11.
 18. Brenner B, Kauffman J., & Sachter JJ. Comparison of the reluctance of house staff of metropolitan and suburban hospital to perform mouth-to-mouth resuscitation. *Resuscitation*, 1996; 32, 5-12.
 19. Locke CJ, Berg RA, Sanders AB, Davis MF, Milander MM, Kern KB, & Ewy GA. Bystande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oncern about mouth-to-mouth contact.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995; 155, 938-943.
 20. 안성훈, 감양원, 안지영, 이상래, 류석용, 김경환, 김홍용, 김성준, 이병권, 이진주. 병원전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대한응급의학회지*. 2001; 31(10), 1059-1065.

=Abstract=

The Attitude about BLS of College Students

Jung Eun Lee*

This study examined the attitude about Basic Life Support of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the efficacy and concerns regarding performing of Basic Life Support via a written survey. This study was conducted among the fresh students of college. The survey was done from March 1 to April 1, 2005. Total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3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

1. The subjects who had previously heard about Basic Life Support were 94.3%.
2. The subjects who had previously learned about Basic Life Support were 11.9%.
3. The attitude of subjects to Basic Life Support education was positive. Of the respondents, 95.7% wanted to learn Basic Life Support and 56.8% would be willing to provide Basic Life Support to collapsed person. If known the method of Basic Life Support than 83.3% of subjects would be willing to provide Basic Life Support to collapsed person.
4. Over than half(56.8%) indicated that they would attempt to provide Basic Life Support if a student collapsed.
5. Concerns regarding performing Basic Life Support on students was 'doing it correctly'.
6. The subjects who had previously heard about AED were 65.0%.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ege students high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Basic Life Support and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rovide Basic Life Support in a medical emergency.

Key Words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Basic Life Support,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BLS, concerns regarding performing BLS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nam Health College